

불교정보는 이제 현대불교 - 부다피아로 통합입니다 (HBMC)

HBMC(현대불교 미디어센터)는 지난 10년의 신문 발행 경험을 토대로 1월 1일부터 '부다피아'를 글로벌 불교포털로 새롭게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보도를 기본으로 폭 넓은 동영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불교전문 멀티 뉴스사이트 '부다뉴스'와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을 통합화원제로 운영, 불교계의 문화와 신행을 위해 꼭 필요한 포털사이트로 거듭 예정이다.

지난 95년 '불교 정보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법을 만나야 세상이 불교적인 유무

부다피아 글로벌 포털로 인류에 행복을!

피아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부다피아(Buddhopia= 佛陀와 彼我的 합성어)'는 10년 만에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응비하는 영문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부다피아는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불교자료의 축적, 자료 공유 및 전달을 위한 매체 기술 확보와 활용, 불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포털로서의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기능들, 멀티미디어 DB를 갖춘 방대한 정보,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부다피아 메인 화면.

편이성에 놀라고 실속에 감동하는 새로운 기능들



부다피아 '블로그' 메인 페이지 화면.

'마이 페이지' 화면.

부다피아 '커뮤니티'의 메인 화면.

3대닷컴 통합화원제

HBMC는 불교포털 부다피아(www.buddhopia.com)와 실시간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부다뉴스(www.buddhanews.com), 온-오프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www.yosiamun.com)을 통합화원제로 운영,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한번의 로그인으로 3대 사이트를 하나의 사이트처럼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는 유저들의 불편을 줄여 불교 콘텐츠와 뉴스, 도서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동 정보검색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 방대한 부다피아 DB를 기반으로 독자 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

각 분야 전문가 및 동호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건전한 수행 및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커뮤니티 안에 갤러리 기능을 신설,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올려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초대기능'을 만들었다.

블로그

불자 개인이 수집한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를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로 올려 놓아

다른 사람들이 정보공유 및 불심 함양의 기회를 자발적으로 갖게 한다.

웹페이지 빌더

사찰이나 단체들이 무료로 웹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으며 관리가 쉬운데다 신도 및 회원관리에 편의성을 갖춰 불교 신행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마이 페이지

부다피아에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 HBMC 3대 사이트에서 이뤄진 나만의 모든 행위와 원하는 정보가 저장된다. 마이 페이지에 여시아문의 도서 주문현황이 나오고 가입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댓글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3대 사이트 회원들이 상호간에 보낸 쪽지와 받은 쪽지의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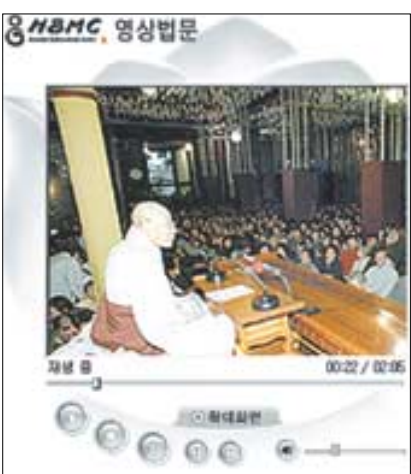
마이 페이지 스크랩

부다피아와 부다뉴스의 어떤 기사든지 다시 찾을 필요없이 스크랩이 가능하다. 여시아문을 통해 '주문형 출판(POD)' 서비스도 제공한다.

쪽지 기능

HBMC 3대 사이트 회원들은 이메일 없이 쪽지를 바로 주고 받을 수 있어 회원 상호간 및 사이트 관리자와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했다.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동시에 쪽지를 보낼 수도 있다.

불교정보를 찾는 눈과 귀가 즐겁다



동영상 법문 플레이어.



'부처님 생애' 메뉴 초기화면.

동영상·오디오·법문, 잡지·고서 등 총망라

영문 서비스

영문 번역을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를 해외로 전한다. 1차로 한국 현대 고승 47인의 법문, 조계종 25교구부사, 경전 소개, 영문 불교사전, 미국 UMI 논문정보, 불교미술, 전 세계 불교잡지 및 단체 주소록 등을 서비스 한다.

동영상·오디오 법문·강의

현대 고승들의 법문과 출·재가 선지식들의 법문 및 강의를 문자는 물론 동영상 및 오디오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대중불교' 등 불교잡지 보기

<대중불교>와 <불일회보>의 모든 기사를 PDF파일로 볼 수 있다. 1953년 이전 절판된 17개 불교잡지를 비롯해 21종 1만1221개 기사를 인방에서 볼 수 있다.

방대한 사진자료

7만여 장의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 사진 등을 즉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의 사찰, 인물 사진을 사용하려면 온라인 상에서 주문하면 된다.

고서 열람 및 연구보존 프로젝트

70여 종의 희귀 불교고서를 PDF파일

로 볼 수 있다. 다운로드 및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희귀 불교자료의 '연구보존 프로젝트(Archive Project)'를 추진한다.

추가 보충정보

주요 색인 및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기본 정보외에 다양한 보충정보가 하루 색인에 추가된다. 보충정보는 관련 뉴스 및 카테고리, 논문(4254건)/고서/잡지, 이미지, 불교사전(2만 단어), 멀티미디어, 지식검색(추후 오픈), 경전/법문, URL 링크 등이 첨부된다.

글·그림으로 보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대기를 기록한 15개 경전을 조사해 80개 테마별로 부처님 생애를 상세히 소개한다. 4개 아람부 경전을 근거로 부처님 생애를 성도이전에서부터 교화, 입멸과정, 미래 승가에 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행화, 만화, 사진, 우표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등을 첨부해 부처님 생애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복지 정보

총 418개 불교관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역별, 분야별, 서비스대상별로 사진과 함께 제공한다.



청우 윤상민 서예전.



'예술과 세상' 중국유물 전시회.

한번 클릭으로

미술관·서점 못갈 곳이 없다

사이버 갤러리

유명 예술가와 전문가들의 사진,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고 필요시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시관이 운영된다. 안장현 사진가의 '불상사진전', 청우 윤상민 서예가의 '서예전', 라규재 사진가의 '사진으로 본 남도들꽃', 고미술전문 갤러리 '예술과 세상'의 '파불(破佛)', 김윤오 단장가의 '단청전',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 사진전', 송광사의 '옛 사진전', 지수스님의 '종이공예전', 현대불교 고영배 사진가자의 '경주 남산전' 등이 전시된다.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

부다피아의 콘텐츠와 현대불교신문의 기사 등 HBMC 3대 사이트의 정보를 지정하면 고해상도의 컬러 사진과 텍스트를 담은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불서 등 온라인 판매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의 3만여종, 8만여권의 불서와 7만여종의 풍경 및 인물사진, 3천여종의 '마하몰(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신행/수행 상담

귀교 교리, 신행, 수행 등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친절하게 답해 준다.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이 선 수행상담을, 신수회 이남숙 회장이 주부 수행상담을 맡는 등 스님 및 전문가들의 상담코너를 잇달아 개설, 바른 공부 길을 안내한다.

e-book 서비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출간된 스테디셀러를 비롯한 250권의 e-book 가운데 1차로 80권의 전자 불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불교뉴스

부다피아의 하루 웹페이지마다 일간보다 빠른 '실시간' 불교뉴스를 제공하는 부다뉴스의 최신정보를 속보로 전한다.



안장현 씨



윤상민 씨



김윤오 씨



라규재 씨